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명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해관 1897’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던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의도시’ 목포를 대표할 새로운 미식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나타냅니다.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을 진열·전시·판매하는 장소를 뜻하지만 ‘미식문화갤러리’가 담은 미술품은, 味述品(맛 미, 지을 술, 물건 품)으로 ‘목포 맛’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간의 명칭은 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은 더욱 큼니다.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공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하였고, 1907년 세관으로 개칭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 1968년 삼학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관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역사성과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인정받으며, 2020년 6월, 구)목포세관 본관 터와 세관창고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 일대를 의미있게 활용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유익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본관 터는 노출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창고 2개 동은 보수정비 후, 목포의 맛과 역사, 관광, 문화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더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 **큰 창고**는 9미를 중심으로 한 목포 음식을 맛보고, 쿠킹클래스, 외식 창업교육 등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미식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작은 창고**는 목포 개항 및 세관 역사를 담은 역사전시관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플랫폼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야외 공간**은, 옛 목포세관의 본관 터는 노출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민 쉼터 등으로 활용됩니다.

